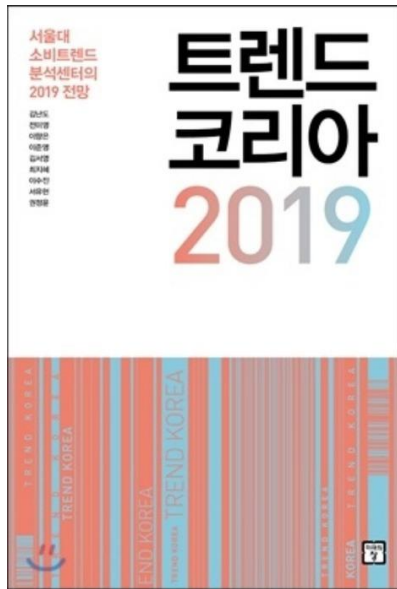


# 개인과 집단

2019. 1

조성봉  
승실대학교

# 이 시대의 다양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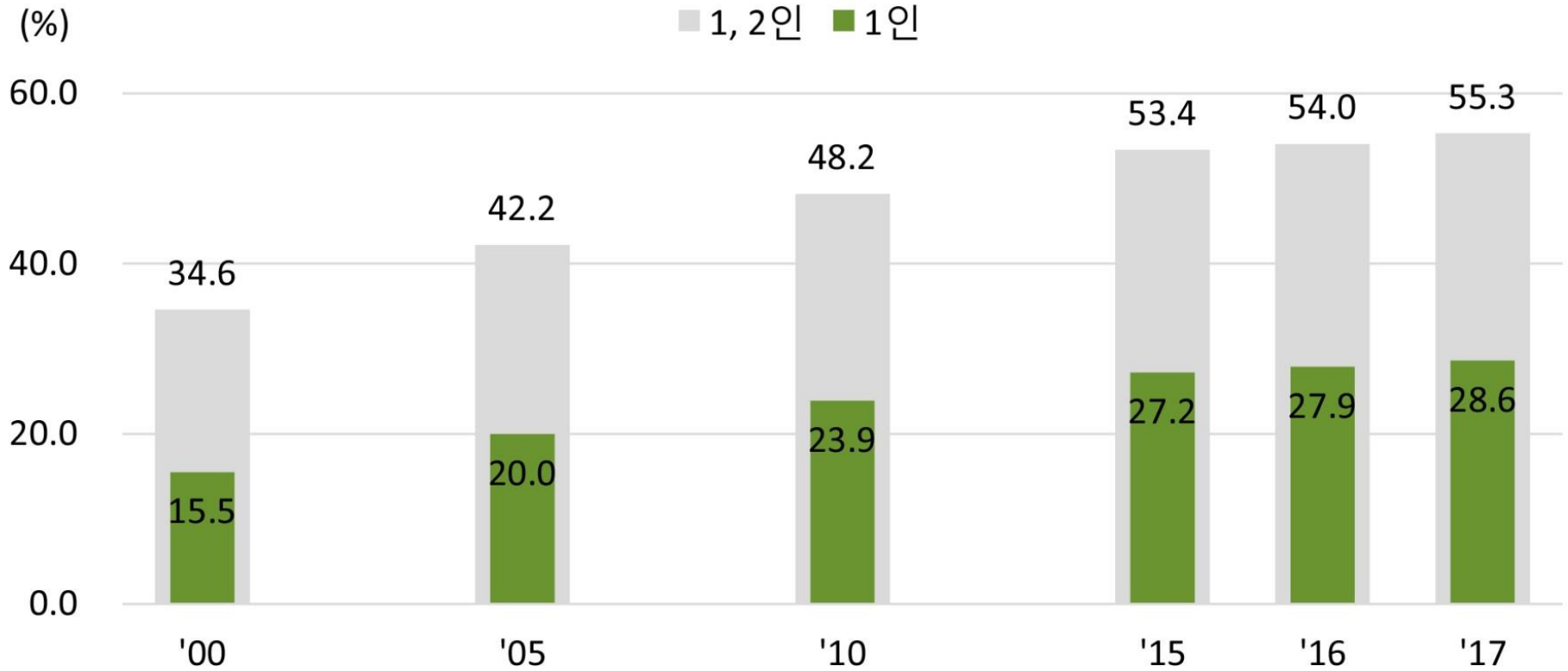


김난도 교수 (서울대 소비자학과)

# 어떤 집들일까요?



# 1, 2인 가구의 급증



통계청(2018. 9), 「보도자료: 2017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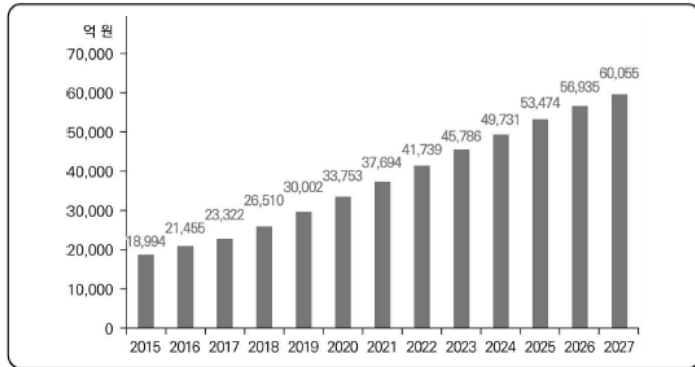
## 이런 버스 광고 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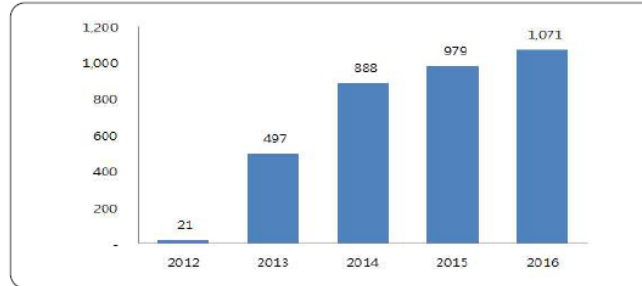
# 반려동물 산업(Pet Industry)의 급증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



〈그림 2-5〉 연도별 동물등록 누적 현황

단위: 천 마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5. 11., 2017.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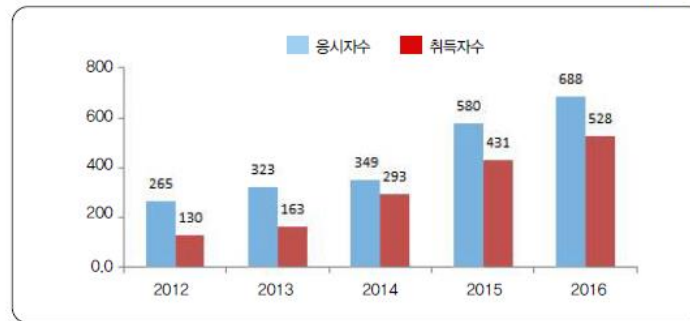
〈그림 2-12〉 도그쇼 개최 현황



자료: 한국애견연맹(www.thekcc.or.kr: 2017. 10. 10.).

〈그림 2-13〉 애견 핸들러 자격검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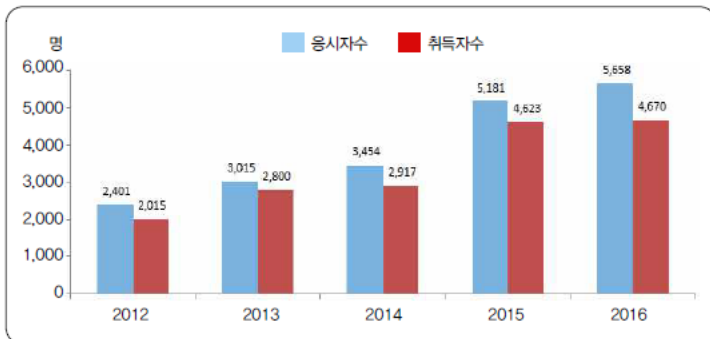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한국애견연맹(www.thekcc.or.kr: 2017. 10. 10.).

〈그림 2-15〉 애견미용서비스 자격증 취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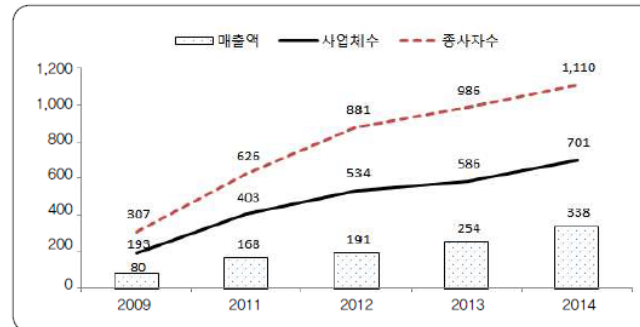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s://www.pqi.or.kr/inf/qual/infQulList.do: 2017. 6. 15.).

〈그림 2-16〉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추이

단위: 억 원,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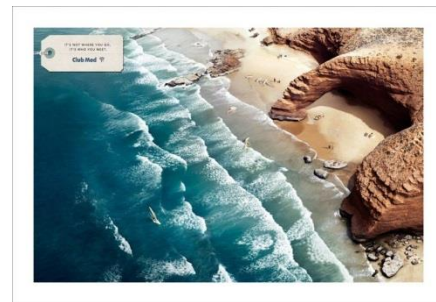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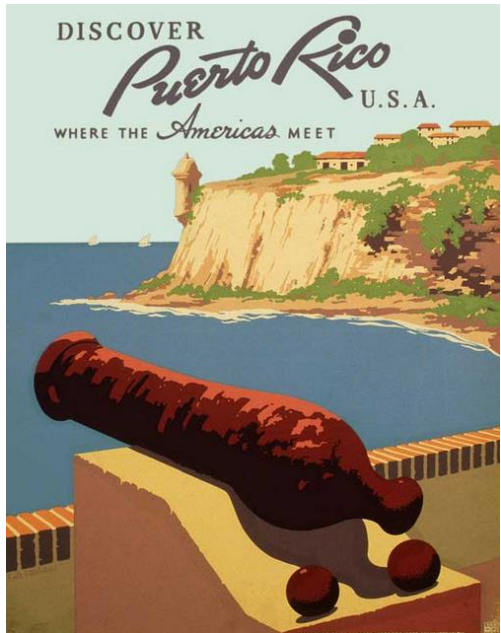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서비스업조사』.

# 연도별 반려동물 보유현황 추정

구분		2006년	2010년	2012년	2015년	2017년		
						KB	펫사료 협회	본 연구
표본크기(명)		2,015	2,030	2,000	3,000	1,500	2,024	2,000
전국 가구수(천 가구)		16,322	17,495	18,119	19,013	19,524	19,524	19,524
개	보유 비중(%)	22.1	16.3	16.0	19.1	25.5	22.7	24.2
	가구당 평균 마릿수(마리)	1.66	1.47	1.38	1.28	1.40	1.50	1.34
	총 사육 마릿수 (천 마리)	5,988	4,192	4,001	4,648	6,968	6,648	6,318
고양이	보유 비중(%)	1.4	1.7	3.4	5.2	5.1	5.6	8.5
	가구당 평균 마릿수(마리)	1.91	1.92	1.70	1.74	1.80	1.90	1.47
	총 사육 마릿수 (천 마리)	436	571	1,047	1,720	1,803	2,077	2,425
전체	보유 비중(%)	22.6	17.4	17.9	21.8	30.9	28.3	29.4
	총 보유 가구수 (천 가구)	3,689	3,044	3,243	4,145	6,033	5,525	5,740
	총 사육 마릿수 (천 마리)	5,988	4,763	5,048	6,369	8,770	8,725	8,743

자료: 지인배·김현중·김원태·서강철(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 무슨 광고일까요?





# 어떻게 여가를 즐기시나요?



# 요즘 이런 곳이 많이 늘어나죠?





# 이런 상품 보셨나요?



모바일 프리미엄 마트마켓컬리

밤 11시 전 주문해도  
아침 7시 전 문앞 도착

[회원가입 하러가기 >](#)

혜택 O1 인기상품 100원 쿠폰	혜택 O2 첫구매 무료 배송	혜택 O3 친구초대 적립금 5,000원
-----------------------	--------------------	--------------------------



# 이런 물건 보셨나요?





# 집에서 이런 물건 쓰시나요?



# 반려동물 TV 프로그램



# 관찰예능 TV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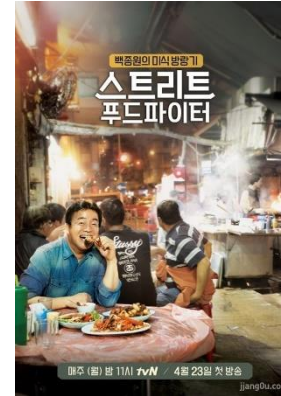


# 여행 TV 프로그램





# 먹방 TV 프로그램



# 집단중심의 폐쇄구조와 개인중심의 개방구조: 어떤 가구 광고



# 이 시대의 다양한 모습

- 1인 가구의 급증
  - 급성장하는 산업/상품/물건: 커피점, 편의점, 펫 산업(Pet Industry), 여행산업, 케렌시아(Querencia) 비즈니스, 가정식 대체상품, AI 스피커, 키오스크, 홈뷰티
  - 유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관찰예능, 여행 프로그램, 먹방
  - 유행어: 소확행, 월라밸, 언택트 기술, 미닝아웃, Gig Economy
    - 소확행(小確幸):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 월라밸(work-life-balance): 일과 삶의 균형
    - 언택트(Untact) 기술: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거래 기술
    - 미닝아웃(Meaning Out): 자기의 주관과 신념을 드러내는 행위, #해시태그
    - 깃 경제(Gig Economy):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계약 맺고 일 맡기는 경제
- ⇒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시대의 흐름, 무엇을 말하는가?

- 속도(Speed)와 이동성(mobility)
- 정보통신 혁명(IT Revolution)
- 개인의 신장



# 개인과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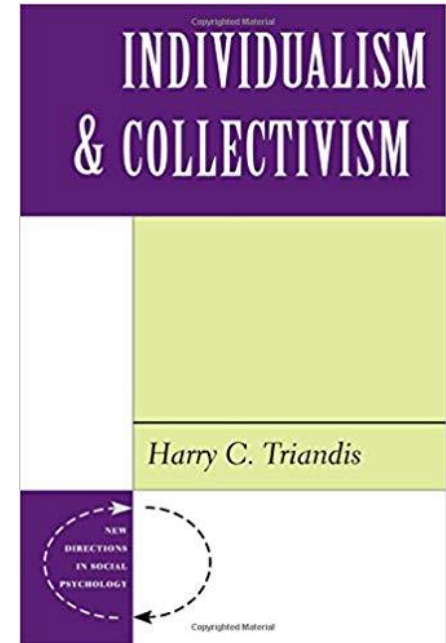
-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의 비교문화론적 논의 -

#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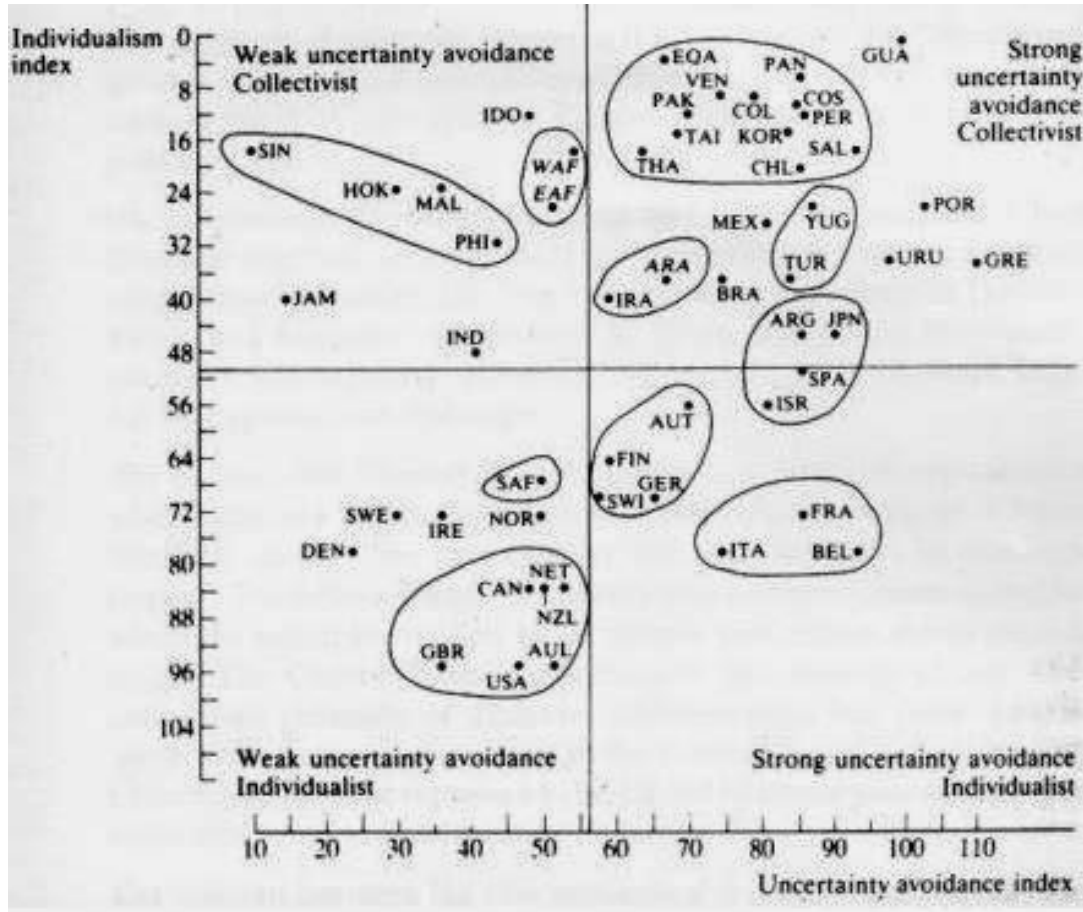
Harry Triandis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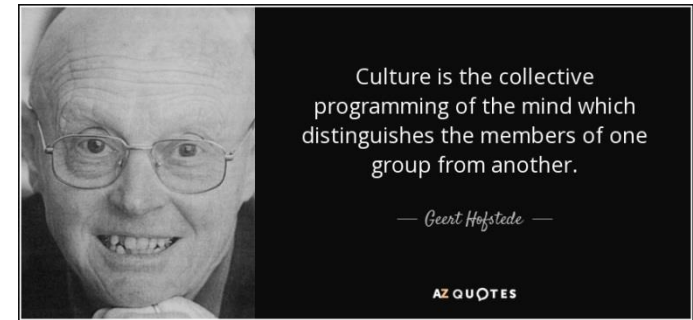
Harry Triandis (1926 - )



# 불확실성 기피수준과 개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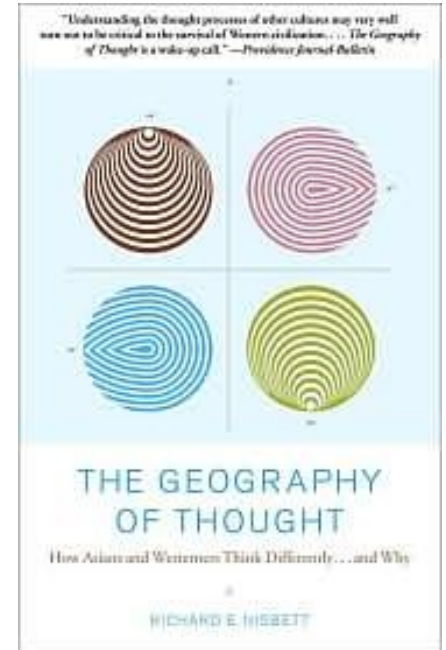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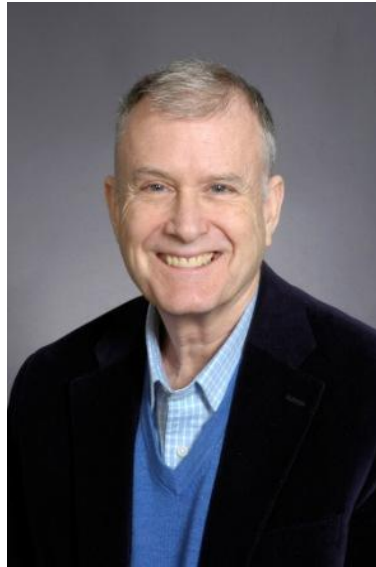
G. Hofstede (1991), *Culture and Organizations*, p. 129.



Geert Hofstede (1928 - )

# 서양 사람과 아시아 사람의 사고구조는 다르다.

Richard Nisbett(2004),  
*The Geography of Thou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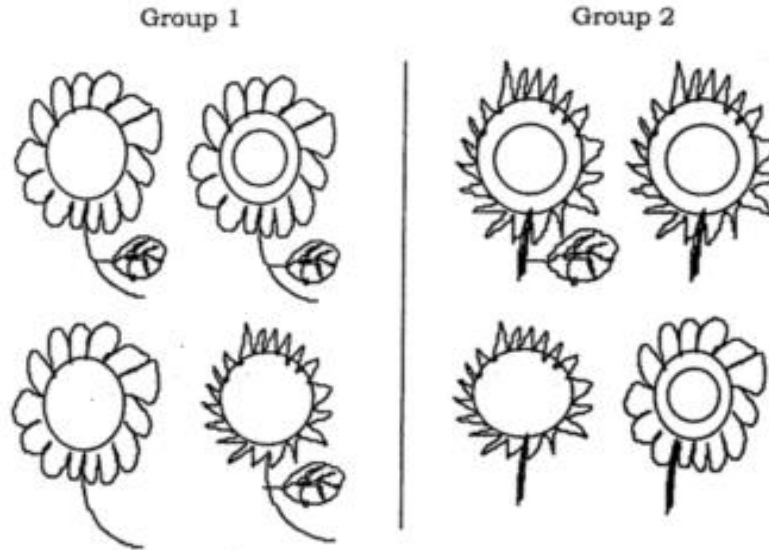




다음의 세 사진 중 둘을 골라서 하나로 묶으려면?



# 아래의 꽃은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Target Object



**Richard E. Nisbett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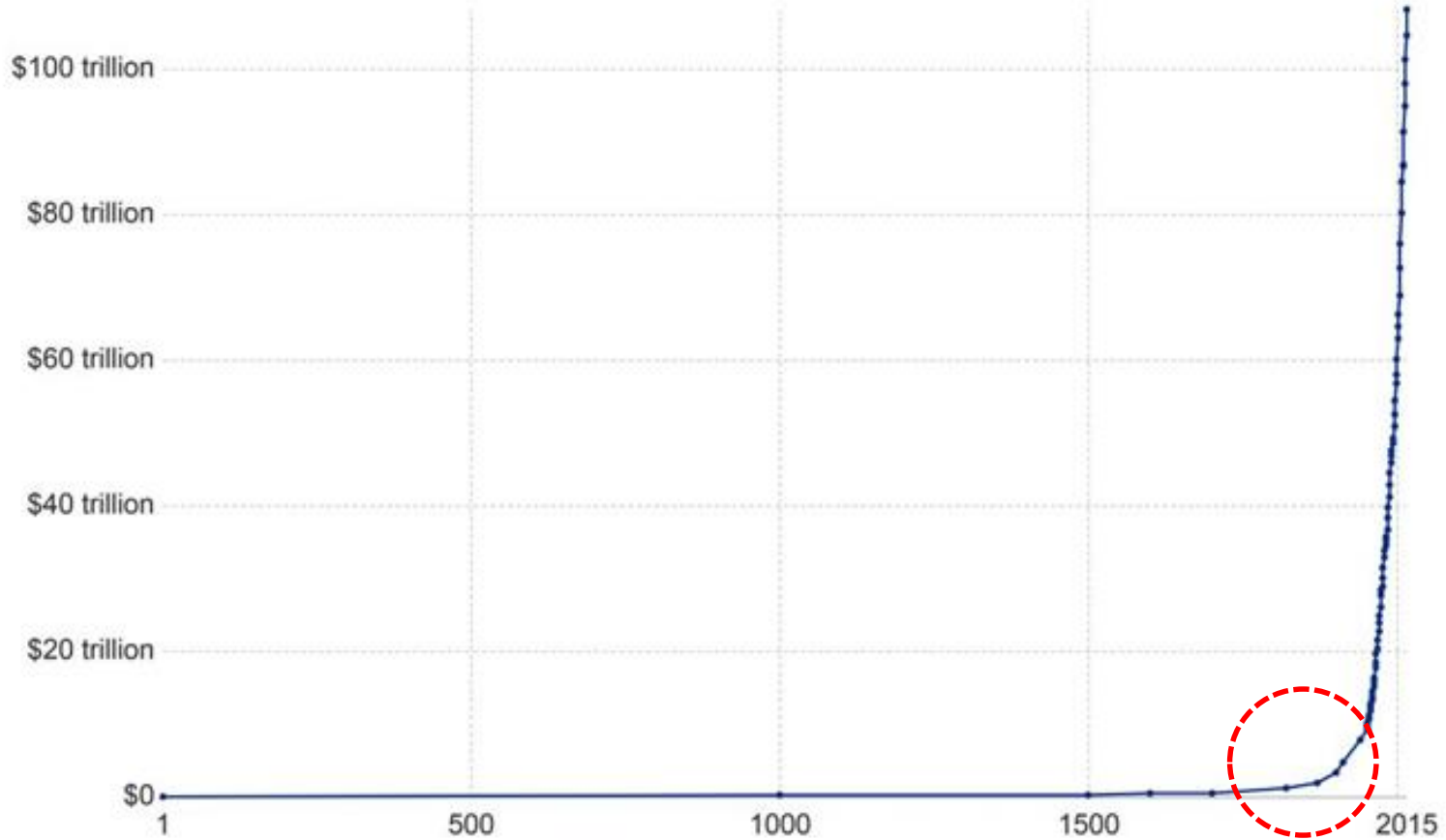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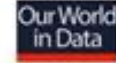
서 양	동 양
그리스	중국
개인중심	집단중심
논쟁(debate)의 전통	화합(harmony)/봉합/타협의 전통
분권적 정치제도	중앙집권적 정치제도
원칙/원리 및 이론	실용성과 길(道)을 강조
대상/개체(object)의 독립성	개체/개인의 상호의존성 강조
분류 (category)	관계 (relation)
모순 개념과 논리학 발달 (옳고 그름을 밝히는 데 집중)	모순보다는 조화를 이끌어내는 변증법적 사고 발달 (두 주장의 중도를 추구)
의학: 개별부위에 대한 수술 발달	의학: 신체 전체의 밸런스를 추구

# 인류사는 개인과 집단의 역사

#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개인과 집단

## World GDP over the last two millennia

Total output of the world economy; adjusted for inflation and expressed in 2011 international doll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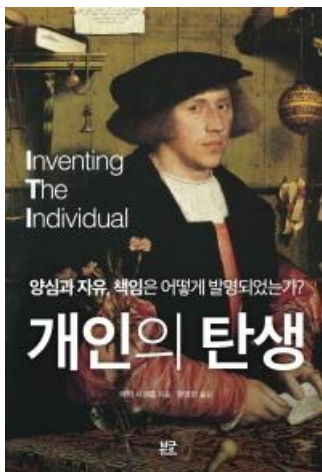
Source: World GDP - Our World In Data based on World Bank & Maddison (2017)

OurWorldInData.org/economic-growth • CC BY-SA



# 인류의 역사: 개인이냐, 집단이냐?

- **고대 인류의 경쟁력: 집단의 힘**
  -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차이는 '사회적 능력'
  - 농업혁명: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전제군주의 출현
  - 고대 전투: 대규모 병력 동원과 연합능력이 승패를 좌우
- **근대 인류의 경쟁력: 개인의 창의력과 집단의 조직력**
  - 근대이전은 가족, 씨족 또는 계급이 한 사회의 기본단위
  - 자유와 평등은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 시민의 등장: 시민혁명, 시민계급은 개인이라는 단위에서 출발
  -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한 균형이 나타나기 시작
- **개인의 탄생: 기독교의 출현**
  - 신과의 관계가 도덕성의 원천: Shame Culture vs. Guilt Culture
  - 집단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개인'을 발견
    - (창 12:1)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 (창 2:24), (마 19:5), (엡 5:31)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Sir Larry Siedentop (1936-)

# WITHOUT CHRISTIANITY, WE WOULDN'T BE FREE.

“Paul's vision on the road to Damascus amounted to the discovery of human freedom—of moral agency potentially available to each and everyone, that is to individuals.”

Larry Siedentop  
*Inventing the Individual*



## 독일 수상 브란트의 무릎 꿇은 사죄(*Brandt Kniefall*)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추념비에서 참회의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 독일수상  
"무릎을 꿇은 것은 브란트 한 사람이지만 일어난 것은 독일민족이었다." - 헝가리 뉴스 캐스터 -

# 근대사회와 창의적 개인의 확산

## • 종교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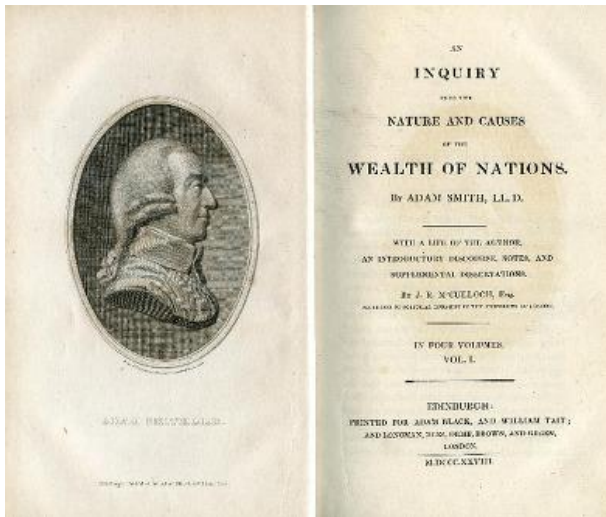
-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95개 조항 발표(1517)
- 영국 성공회의 탄생: 헨리8세와 영국교회의 국교화(1556)

## • 시민계급의 등장

- 의회제도의 발달: (대헌장, 1215) → 권리청원(1628) → 청교도혁명(1642-1648) → 명예혁명(1688) → 권리장전(1689)
- 시민혁명: 명예혁명(1688), 미국 독립혁명(1776), 프랑스 대혁명(1789)
- 재산권과 자유주의 이념: 로크(1689) 『시민정부에 대한 두 논문』
  - “소유가 주권보다 앞선다.”
  - “나는 나 자신을 소유한다.”
- 아담 스미스(1776) 『국부론』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 개인의 이해가 공동체의 이해와 조화되는 세계
- 17-19세기 산업혁명: 상공업 발달과 중산층 시민계급의 부상
- 막스 베버(1904)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출간과 미국의 독립선언이 같은 1776년에 나타난 것은 우연인가?





#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탄생

-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발명품 -

- 국민국가는 개인과 시민계급에 기원
  - 국민국가 탄생의 계기: 베스트팔렌 조약
- 국가의 3 요소: 주권, 국민, 영토
- 국민국가(Nation State)
  - 정치적 단위의 국가와 문화적 단위인 국민의 결합
  - 문화적 공동체인 국민으로 형성된 국가
  - 반드시 단일 민족일 필요는 없음.
  - 언어와 문화가 대체로 일치된 경우가 대부분
- 국민국가의 특징
  - 국가 정체성과 국가의식의 정립
  - 전국민 교육제도, 근대적 의료 및 복지제도
  - 관료제도와 상비군
  - 한 국가전체를 담당하는 언론의 등장

⇒ 현대 국가의 일반적 특징으로 자리잡음.

# 국민국가 탄생의 전조

## - 베스트팔렌 조약(The Treaty of Westphalia, 16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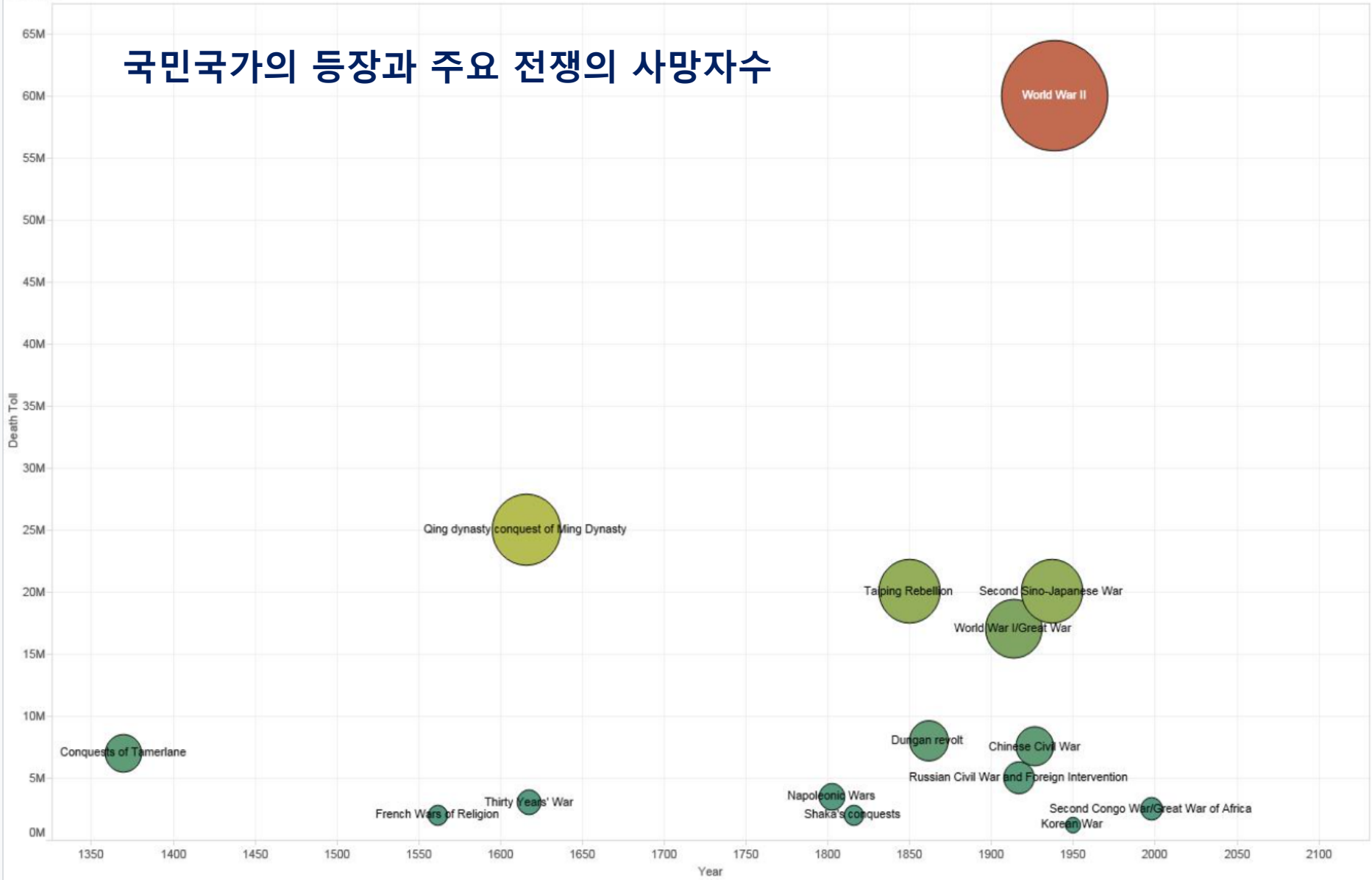
- 독일 서북쪽의 Westphalia 지역에서 맺은 협정
- 독일영토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의 종식
- 194개 대표단이 참여
-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란 근대적 외교개념의 탄생
  - 명확하게 정의된 중앙집중적 권력을 갖춘 독립적 개체를 대상으로 주권과 영토 인정
  - ⇒ 근대적인 국가개념의 효시



# 국민국가의 탄생: Good News & Bad News

- 국민국가간의 교역
  - 국민국가는 산업혁명을 통한 중산층 및 시민계급의 등장으로 형성
  - 산업의 발전에 따른 국가간 교역과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
- 국민국가 내외부의 갈등: 대형전쟁으로 인한 파국적 결과
  - 나폴레옹 전쟁, 남북전쟁, 각국의 독립전쟁, 러시아 및 중국의 내전(태평천국의 난 포함), 청일전쟁, 러일전쟁, 크림전쟁, 중일전쟁 등
  - 1·2차 세계대전
  -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 전체주의의 등장
  - 파시즘과 나치즘: 무솔리니, 히틀러, 프랑코
  - 일본식 군국주의
  -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방식의 공산주의 일당독재

# 국민국가의 등장과 주요 전쟁의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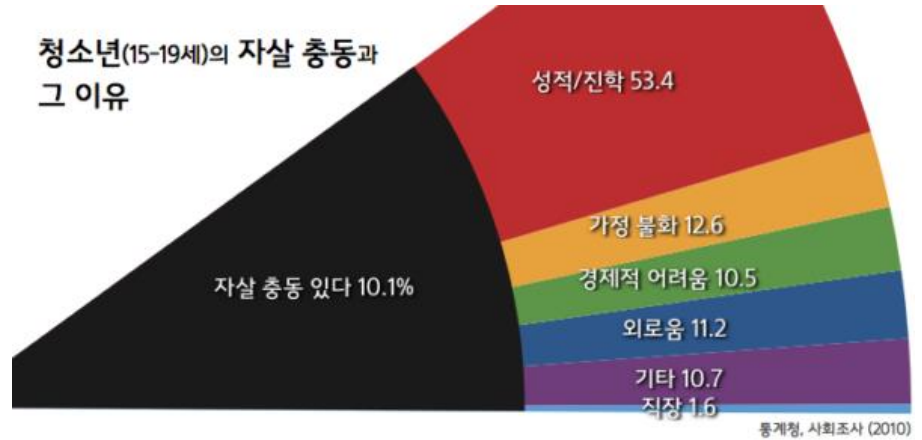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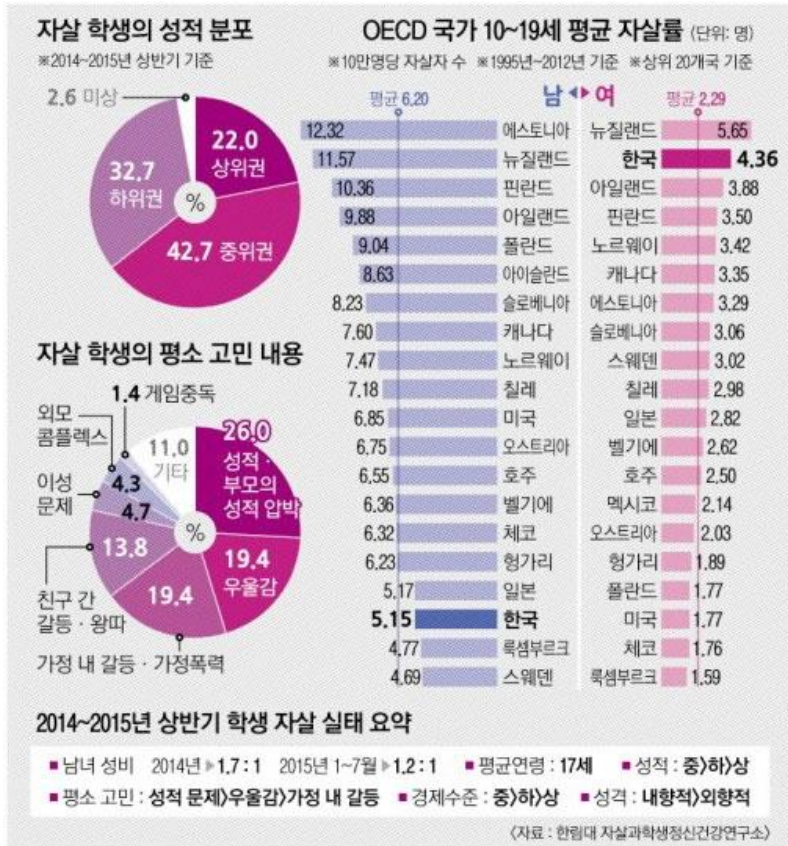


#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개인의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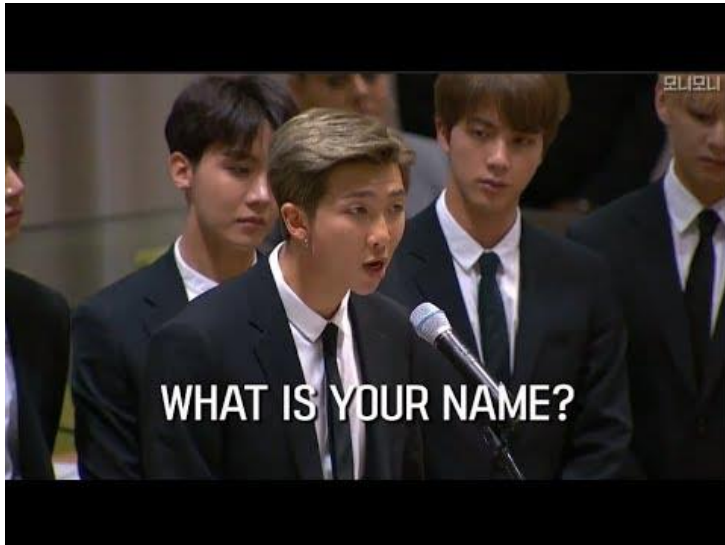
# 집단의 폭력에 비명 지르며 탈출하는 개인의 시대

- 한국사회 근대화 과정과 개인의 위치
  - 한국사회의 획일성: “튀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유교적 가족 공동체: 남성 중심, 여성의 희생
  -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학교·직장에서 군대식/관료주의적 집단주의 사고방식 만연
  - 서서히 깨어나는 개인의 자각: 만혼, 독신, 저출산율, 고령화
-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구성상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 지나치게 과열된 교육열과 엄친아 신드롬
    - 우리 학생들의 16년의 고난의 행군, 높은 청소년 자살률
    - “엄마 체면 봐서 대기업 취직해라.”
- 방탄소년단(BTS)의 UN 연설
  - What is your name?
  -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gender identity, speak yourself.
- 개인의 등장과 새로운 이슈
  -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문제
  - 페미니즘

# 우리나라의 높은 청소년 자살률, 그 이유는?



# 방탄소년단(BTS)







# 이효리의 명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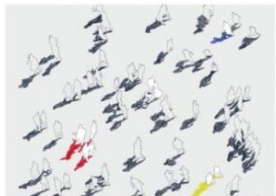
## 박성현(2011), 『개인이란 불리는 기적』

개인이란 존재는 저절로,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개인은 예외였다. 사람은 오랫동안 떼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 속에는 떼의 본능이 매우 강력하게 뿌리 틀고 있다. 훌륭한 떼는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훌륭한 자아는 나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 개인은 탄생하기도, 번성하기도 어려운 종족이다. 개인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기적인 것이다. (p.24)

## 문유석(2015), 『개인주의자 선언』

나는 감히 우리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굴레가 전근대적인 집단주의 문화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개인주의라고 생각한다. (p.23)

어른이 되어서 비로소 깨달았다.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모델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상명하복, 집단우선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의사, 감정, 취향은 너무나 쉽게 무시되곤 했다. '개인주의'라는 말은 집단의 화합과 전진을 저해하는 배신자의 가슴에 다는 주홍글씨였다. ... 그 불운한 단어인 '개인주의'야말로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엔진이었다. ... 우리가 서구에서 수입한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개인들을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 서구에서 발전시킨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공부하고, 평생 이를 적용하는 일을 하는 법관에게 개인주의라는 말은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니다. (pp.24-26)



##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의 일상담

"나는 문유석 박사 생각의 대부분과 그의 성향이 상당 부분이 나와 겹친다는 데에 경이로움까지 느껴면서 이 책을 읽었다. 이러한 훗날 내게 기회가 오더라도 이런 책은 쓸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책이 그냥 많은 책들 속에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 -문유석, (UTS뉴스) 기자

문유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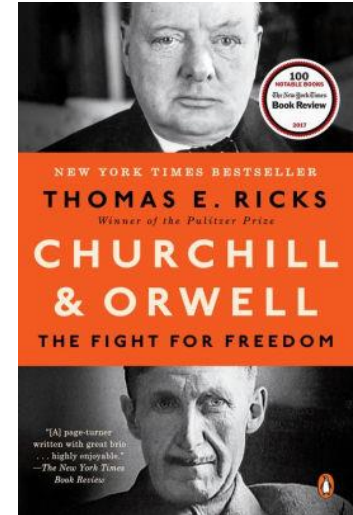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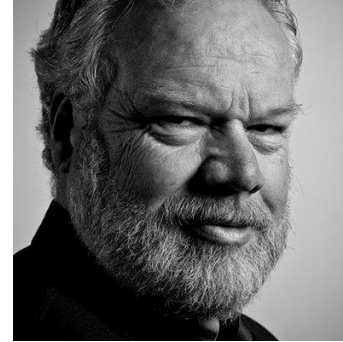




# Churchill & Orwell

## - *The Fight for Freedom* - (2017)

### by Thomas E. Ri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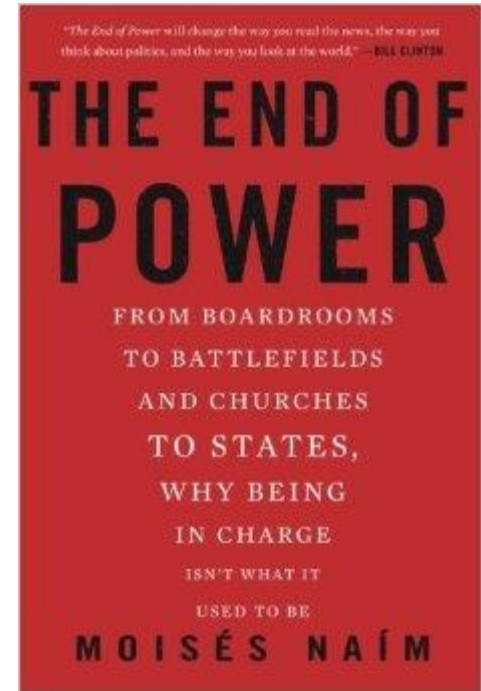


- 전체주의에 맞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 싸운 두 인물
  - 처칠: 히틀러와 무솔리니 등의 극우 집단주의에 대항
  - 조지 오웰: 스탈린식 전체주의적 공산주의를 고발 *Animal Farm*(1945), *1984*(1949)
    - “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re more equal than others.”



# *The End of Power* (2013)

by Moises Naim



- 모든 조직에서 권력이 현저히 약화
  - 정치, 종교, 기업, 문화 등
- Why? → 3M
  - The *More* Revolution
  - The *Mobility* Revolution
  - The *Mentality* Revolution

#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종언 현상

- 정치

- 정치 지도자의 급속한 퇴진, 탄핵 등
- 보스 및 파벌정치의 퇴조 → 예비선거(Open Primary)의 확대

- 미투(Me Too) 운동

- 정치, 관료(검찰), 문화계 등에서 성추행 보스의 추락

- 내부고발의 확대

- 재벌 총수 일가 및 CEO에 대한 고발: 땅콩 회항, 막말/폭행 갑질
- 정치인, 청와대, 관계, 공기업에서의 내부 고발

- 기업문화의 변화

- 체육대회, 등산대회, 야유회, MT, 연찬회 등에 대한 거부감 확대
- 저녁 회식의 기피

# ‘미투 열풍’ 일본엔 없다

특파원 리포트



김수혜

도쿄특파원

일본의 경제 관료가 관료로 출세할 수 있는 최고위 보직은 ‘재무성 차관’이다. 이른바 ‘최강 관청의 최고 간부’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나라 살림 실무를 총지휘한다. 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여기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다 들켜 지난달 사표를 냈다. 여기까지는 서극이고 진짜 풍파는 다음에 왔다.

물러난 차관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가 아끼던 ‘유능한’ 사람이었

다. 아소는 자민당 2대 파벌을 이끄는 수장이자, 아베 정권의 2인자다. 그는 첫 보도가 나온 뒤 “일방이 하는 주장이니 더 조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기자들이 피해자 인권을 따지자 “그럼 차관 인권은 없느냐”고 맞받았다. 아소는 “차관이 (억울하게) 억인 것 같다”고도 했다. 언론이 사람 잡았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해당 차관이 성희롱을 했다는 것 그 자체는 뒤집히지 않는 팩트다. 차관이 기자에게 “안아도 될까?” “기슴 만져도 될까?” “손 묶어도 좋아?”라고 ‘히야카시(冷やかし)’ 하는 녹음 파일을 시사주간지가 일찌감치 공개했다. 상대는 질색하는데 자기 편엔 농담이라고 끈질기게 주해 부리는 게 히야카시다.

남은 논점은 이제 과연 ‘사표 받고 끝날 일이나 아니냐’인데, 아소 부총리는 여론이 끓건 말건 시종 “‘성희롱 죄’라는 죄는 없다”고 우겼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을 초 한국을 강타한 ‘미투 열풍’을 생각했다. 성희롱·성추행·성차별 자체만 따지면 우리도 일본 더러 뭐라 할 처지가 못 된다. 술 문화, 조직 문화, 정치 풍토 모두 우리가 더 거칠었다. 일본과 달랐던 건 ‘반성 속도’다. 나들 자기 언동은 괜찮은 줄 알고 살아오긴 한 일이 오십보백보다. 다만 한국인은 남이 ‘세계’ 두들겨 맞는 걸 볼 때마다, 뜨끔해서 후닥닥 몸가짐을 바로잡았다. 열차려를 받고 나면 집총 속도가 달라지듯, 일단은 기린하게 반성했다.

두 나라가 다른 건 한국 사회에 수차례 휘몰아친 ‘도덕적 일차려 태풍’이 일본에는 없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다. 일본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절감하다가도 ‘그렇지만 답답하다’고 숨이 꼭 막히는 게 이럴 때다. 다른 분야처럼 이 분야에서도 한국은 적잖은 성장통(痛)을 겪었다. 그래도 길게 보면 우리는 빠르게 빨리 변했다.

짚고 넘어가자면, 아소 부총리가 “‘성희롱 죄’라는 죄는 없다”고 말한 건 팩트에 어긋난다. 어려운 말로 모호하게 써 놔서 그렇지, 일본 민법·형법은 둘 다 성희롱이 불법이라고 못 박고 있다. 아소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사막의 모래톱이 바람 불면 옮겨가듯 도덕도 법도 시대에 따라 이동한다. 더 많은 사람이 바라는 이익에 부합하게 변해가면 그게 선(善)이다.

- 우리나라보다 먼저 근대화된 일본에서 왜 ‘미투 열풍’이 불지 않는가? (조선일보, 2018. 5. 21. A26면)
- 동아시아에서 근대적 의미의 시민혁명을 거쳐 탄생한 정부는?

# 골절 후 300m를 기어가 ... 이게 일본 정신?

- 전일본 여자 실업 역전 마라톤 예선의 이이다 레이(19) 선수 -



조선일보, 2018년 10월 25일(목) A18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